

'우석 동아시아 평화 포럼' 온라인 개최

우석대·실크로드영상연구원, 세계적 석학 7인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의 방향' 모색... 26일부터 연말까지 화상 진행

우석대학교가 오는 28일부터 7회에 걸쳐 '우석 동아시아 평화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와 실크로드영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실천과 이론적 구조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긴 호흡으로 조망하는 자리가 드물었다.

포럼은 오후 8~10시까지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 진행되며, 28일 첫 포럼은 서승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동아시아 평화의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6월 28일에는 김문경 전 일본 교토대학 인문연구소장이 '한·중·일 관계에서 보는 중화 체제'를, 7월 21일에는 이노우에 카츠오 일본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가 '동아시아 속의 동화농민전쟁'을, 9월 22일에는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포츠담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발표한다. 또한 10월 27일에는 남기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일조약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본다'를, 11월 24일에는 치우쓰제 중국 사단대학 교수가 '반파시즘 전쟁·항일전쟁 승리와 타이완 문제'를, 12월 22일에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이 '일타포

츠담 체제의 붕괴 후의 동아시아 평화 체제의 탐색'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승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은 이번 포럼과 관련해 "동아시아 평화의 핵심은 분단 전쟁의 긴장해소와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 책임의 정산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며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라북도 학교 밖 돌봄네트워크 회원기관 9곳, 500여 명은 1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거석 후보는 실력과 청렴성, 그리고 헌신성과 민주적 소통을 통해 이미 검증된 인물로, 혁신이라는 희망으로 새로운 교육의 시작을 열어줄 서거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북교육청, 2022년 하반기 교장공모제 추진 | 초등 42교, 중등 21교 대상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월 1일자로 현임 학교 교장 공석이 예정되는 도내 초등 42개교, 중등 21개교 등 총 63개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학교 중 일반학교에서 신청 가능한 초빙형은 55개교,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은 7개교, 자율학교 중 특성화 학교와 특수목적·예체능계 고등학교가 신청가능한 개방

형은 1개교다. 이 가운데 학교 수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지정한다. 교장공모 대상 학교 중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는 가정통신문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 교직원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초·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으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31일 교장공모제 운영학교를 선정·통보하고, 6월 2일 교장공모 실시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학교를 중심으로 6월 7~10일까지 교장공모 공고 및 지원자 접수를 받은 뒤 6월 20~22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6월 24~27일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에서 2차 심사가 이뤄진다. 한편 공모교장 임용자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4년간 해당 학교를 이끌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며 "단위학교 자율운영을 위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학교 밖 돌봄네트워크

회원기관 "서거석 후보 지지"

"실력·청렴 등 검증"

전라북도 학교 밖 돌봄네트워크 회원기관 9곳, 500여 명은 1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거석 후보는 실력과 청렴성, 그리고 헌신성과 민주적 소통을 통해 이미 검증된 인물로, 혁신이라는 희망으로 새로운 교육의 시작을 열어줄 서거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전북 교육은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돼 있고 교권은 바닥으로 떨어

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에게 항상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하길 의문을 표한 방법이 없었다"면서 "학생 자치를 강조하고 전북학생의회를 운영해 학생 정책을 제안, 검토, 심의하겠다는 공약은 획기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안정된 교육환경 뿐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에도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지역 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후보는 서거석 후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엔앨비 전북 스타기업 선정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엔앨비(대표 강건우)가 2022년 전라북도 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총 15개의 스타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엔앨비는 최대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는 전담PM(project manager)이 지정돼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R&D과제 사전기획, 시장진출 로드맵 및 글로벌 마케팅 전

최대 5년 간 정부지원 받아
락수립 등의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이 이뤄진다. 2~3년차에는 지역특화산업육성 R&D과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과제 선정시 최대 2억 원의 R&D과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엔앨비는 군산 오식도도에 위치한 전북대 창업보육센터에 2019년 입주한 기업으로, 국내 최초 이동형 모듈러 학교인 '브릿지스쿨(Bridge School)'을 개발한 기업이다. 권대규 센터장은 "우리 대학 내 입주기업이 전라북도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 육성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한 큰 성과가 아닐수 없다"며 "스타기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직 교육장 31명, 천호성 후보 지지선언

"학교 현장교육 어려움 아는 '젊은 현장교육 전문가'"

전직교육장 31명은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장 후보 중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젊은 현장교육 전문가 천호성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 12년을 뒤돌아보면 최소한 부패비리와 인사불공정은 전북에서 잊혀진 단어가 됐다. 김승환 교육감 이전 인사에서는 밀실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가 일상적 단어가 됐으나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이런 단어가 사라졌다.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들이 그 산 증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전직교육장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유지 강화시킬 수 있는 후보 비리와

맞설 수 있는 후보 무한경쟁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후보인 천호성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천호성 후보는 교육감 후보 중 유일하게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 상담 생활지도도 해왔던 15년의 교사 경험,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에서 15년의 수업연구 교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후보 중 유일한 50대의 젊은 후보로서, 세대교체 또한 전북도민의 열망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천호성 후보는 200여 시민사회단체와 12만 5천의 선출인단이 참여해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후보"라며, 천호성 후보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고1·2

입시설명회 개최

21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1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고1·2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2023학년도 이후의 교육 및 대입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과정 연계 진학지도 방안인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 입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부터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달라진다. 자기소개서(자소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기록 중 수상경력, 독서활동, 개인 봉사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경쟁력 '탄탄'... 대학대 전환 혁신 '가속도'

군산대학교,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올해 30억여원 재정 지원·내년에도 지원받아

군산대학교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어 탄탄한 대학 경쟁력을 입증하게 되었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은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미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시스템과 교육환경 등 대학 경쟁력이 우수한 대학을 추가 선정된 것으로, 4년제 대학은 군산대, 인하대, 성신여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군산대학교는 올해 30억여 원의 일반재정(대학혁신사업비)을 지원받게 되고, 2023년과 2024년에도 일반재정을 지원받아 강도 높은 대학혁신을 진행하게 된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학사구조 개편안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HASS대학(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과 ONSB대학(Ocea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등 2개 단과대학을 설치하고, 본부 직할로 개설한 법행정경찰학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자율전공학부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또한 4차산업혁명 트렌드에 맞는 우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수·학 습지원 고도화에도 매진한다. 이를 위해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질관리 체계 강화, 학생 성공을 위한 참여형 교수학습 혁신, 개방형 교육혁신 기반

마련, 학사구조 개편에 대응한 교수역량 강화 및 공유연계 활성화에도 전념할 계획이다. 이번엔 새롭게 마련된 특성화 대학 부제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계획으로, 군산대는 지역 여건과 국립대학의 특성 및 역할을 고려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사편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학부별 연구행정인력 지원시스템과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개혁의 고비를 놓지 않을 예정이다. 이장호 총장은 "군산대학교는 지역과의 공유, 협력, 상생을 위한 교육개혁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선정과 함께 군산대가 준비하고 있는 대학대 전환에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학생, 교직원들은 물론 졸업생, 지자체, 시의회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의 여세를 몰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으로 개혁 의지와 동력이 더욱 강화되며, 대학대 전환을 위한 군산대학교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김관곤 기자

"경력에 한국대표이사로 표기

직함 표현방식에서의 차이"

천호성 교육감 후보

천호성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천 후보의 세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 경력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용에 대해, 세계수업연구학회에서 받은 공문을 공개하며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단지 직함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계수업연구학회가 천 후보의 직함을 '세계수업연구학회 이사'이며, 한국대표(Council Member of the Council of WALS and representative of Korea)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장은성 기자



천 후보는 "경력에 한국대표이사로 표기할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직함 표현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군산대 화학과 학생회, 신입생에게 학과 점퍼 무료 제공

군산대학교 화학과 학생회가 올해 신입생에게 학과 점퍼를 무료로 제공하고 상호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등 신입생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화학과 학생회는 지난 16일 2~4학년 재학생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받아 신

입생에게 학과 점퍼를 무료로 제공하는 증정행사를 했다. 이날 증정식에서 임태진 학회장은 "학과 구성원이 된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힘을 합쳐 좋은 학과를 만들어 보자"고 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